

# 미래를 위한 청소년 도덕교육의 과제

宋 尚 舜\*

## I

우리는 일찌기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겪어 본 적이 없는 急變과 錯綜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되고, 또한 하나의 변화가 보다 많은 다른 변화를 끌어 일으키는 이른바 변화의 自己增幅에 의하여 보다 爆發的으로 전개되어 갈 추이에 있다.”

미래에 인류가 겪게 되는 변화는 진화적/evolutionary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혁명적/revolutionary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지구적 혁명/global revolution<sup>2)</sup>의 거센 파란에서 독야청청으로 초탈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도리어 근래에 그 국제적 지위의 급상승과 개방화 추세의 급진전 등에 의하여 세계의 어느 다른 곳에 못지 않거나 보다 더 드센 격변에 휩싸여 시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금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다음의 세대들은 여태까지보다는 훨씬 더 고도화되는 변화와 그에 불쫓아오는 무수한 신기성에 부대껴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관한 갖가지 진단과 처방에서 날이 갈수록 未知·未決의 부분이 既知·既定의 부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증대되는 적응 실패의 심각성과 더불어 상반된 방향선택의 갈림길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갈등과 스

\* 제주교육대학교 학장

1) Edward Cornish, *The Study of the Future: An Introduction to the Art and Science of Understanding and Shaping Tomorrow's World* (Washington, D. C: World Future Society, 1977), pp. 2~5.

2)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0), p. 28.

트레스를 끊임없이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문제/Problem des Tunsollen와 가치문제/Problem des Wertvollen에 있어서의<sup>3)</sup> 그들의 윤리적 선택인 경우도 갈수록 심해지는 혼돈과 갈등의 十字火에 부대껴서 未曾有의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 II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Was sollen tun?와 무엇이 가치있는 것인가/Was ist wertvoll im Leben?라는 인생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부딪치는 물음에 대하여 그때그때 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힘이 곧 正義'라는 원리/the principle of might makes right에 의하여 쉬이 지배되게 마련이다.<sup>4)</sup> 즉 그들의 행위나 사고가 결국 맨 나중에 등장하거나 가장 자주 되풀이하여 강조되는 규범이라든가 또는 當時 當場에 그들을 에워싸서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위압을 가하는 이러저러한 무리의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거의 전적으로 좌지우지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典據/locus는 그들 자신 밖에 있게 되고 그들의 가치판단은 전적으로 상황적/situational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윤리문제에 있어서의 그들의 선택이란 한갓 외부로부터 投入/introjection 내지 侵犯/invade된<sup>5)</sup> 것일 뿐으로서 참다운 '제 것'이 아닌 까닭에, 왜 그랬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그 '자신도 모르게' 마련이고, 따라서 그러한 선택이 자신의 삶에 주는 의미/meaning는 물론이고 그것이 남에게 끼치는 결과/effect에 대한 책임감 역시 회피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벌써부터 이른바 타인지향형/the other-directed type<sup>6)</sup> 또는 시장지

3) Nicolai Hartmann, *Ethik* (Berlin : Walter de Gruyter & Co., 1962), s. 1ff., 9ff und 18f.

4) Howard Kirschenbaum and Sidney B. Simon, "Values and the Future's Movement in Education," in Alvin Toffler, ed., *Learning for Tomorrow : The Role of the Future in Education* (New York : Vintage Books, 1974), p. 260.

5)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trans. by Myra Bergman Ramos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70), p. 151.

6) David Riesman, *The lonely Crowd*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1961), pp. 17~25.

향형/the market orientation type<sup>7)</sup>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레이더/radar적 同調性 向에 의하여 결국은 판에 박힌 것과 같은/stereotyped 성격의 인간들이 量産됨으로 하여 문제가 심각해져서, 심지어는 인류 위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사회집단 속에 매몰되어 自動裝置人形的 활동/automaton activity<sup>8)</sup>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형의 출현은 곧 자율성/autonomy이라든가 개성이나 주체성이니 하는 것의 상실과 表裏關係에 있는 것으로서, 이는 마침내는 인간성/humanity 차체의 증발이라는 현상으로까지 귀결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1960년대 초에 S. Milgram에 의하여 보고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그의 복종성/obedience 내지 잔혹성에 관한 실험연구에서의 예상외의 놀라운 결과를 비롯하여 실제의 My Lai 및 Watergate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자기 자신의 합리적 사고를 통한 자율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어떤 선택이나 처신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匿名性의 사회적 압력이라든가 막연하게 상부의 지시 내지 意中이라고 여겨지는 것 등에 대한 타율적 맹종에 의하여 '사람이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가 더욱 더 기승부리게 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 대처하여 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도덕교육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청되는 실정에 있다. 물론 여태까지의 도덕교육이라고 하여 이에 관한 노력을 전연 하지 않았거나 아주 게을리 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을 성싶다. 하지만 지난날 교육의 효과가 지금의 현실에 별로 나타나지 않거나 오늘날 교육이 미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거의 해결해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면 그러한 교육은 마땅히 검토되어 그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 III

도덕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크게 두가지의 견해가 서로 맞서 오고 있다. 그 하나는 습관, 전통 및 通念, 그리고 품행단정하고

7) Erich Fromm, *Man for Himself: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Eth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8). pp.67~82.

8) Ibid.; p.87.

원만하도록 길러 내기 위한 훈육/being properly brought up 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이와 대조적으로 지적인 훈련/intellectual training이라든가 이치/reason를 따지는 비판적인 사고와 선택행위의 계발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다.<sup>9)</sup>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차는 보다 앞서 이미 오래전에 쟁점화하여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문제인 덕/virtue 또는 도덕성/morality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해답과 근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sup>10)</sup> 어떤 이들은 덕이란 이른바 본래 있게 자란 사람들/well-brought-up people이나 君子 내지 신사 등이 지니는 내·외면적인 특성<sup>11)</sup>, 즉 사회적으로 시인되고 있는 관념이라든가 '법과 질서'/law and order 등에 어긋나지 않고 대다수 사회성원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합치 내지 조화/conformity or concordance 하도록 길들여진<sup>12)</sup>, 그런 의식의 파지와 情意/affection 및 언행의 습관 등, 이를테면 L. Kohlberg가 제시한 도덕발달단계에서 제3과 제4단계를 포괄하는 因習的 수준/conventional level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 주는 志向/orientation 또는 태도 내지 行身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소간에 타당성을 지닌 윤리적 기본원리들이나 주요 가치들을 합리적인 고려/rational considerations를 통하여 파악하고 또 그것들을 현실의 상황에 다知的 내지 반성적으로 적용하여 가는 자율적인 처사/conduct에서<sup>13)</sup> 덕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덕에 대한 이들 두 부류의 持說간의 논쟁에서 아직은 의견들이 어느 한 쪽으로 모아지거나 수렴이 되지 않아서 어떤 단안을 내리기가 막연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앞에서 말한 도덕교육에서의 역점에 관한 소견의 대립인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그 명쾌한 해소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에서 말

9) R. S. Peters, "Reason and Habit: The Paradox of Moral Education," in W. R. Nisblett, ed., *Moral Education in a Changing Society* (London: Faber and Faber, Ltd., 1963), p. 46.

10) Ibid., pp. 46~47.

11) Ibid.

12) Nancy Porter and Nancy Taylor, *How to Assess the Moral Reasoning of Students: A Teachers' Guide to the Use of Lawrence Kohlberg's Stage-Developmental Method* (Toronto: The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1972), p. 3.

13) Peters, *op. cit.*, p. 49.

했듯이 현대는 급속하고 광범위한 사회변동의 시대로서, 오늘날 金科玉條로 신봉하고 있는 도덕규준들이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치관이 앞으로 계속하여 溫存되어 가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도덕교육의 방도에 있어서도 어떤 세세한 규범이나 덕목 가치들을 일일이 내면화/internalization 내지 학습하게 하여 무의식적 가정/presupposition이 되게 하고, 그에 의거하여 구태여 의식적 자각/conscious awareness을 동원하지 않고도 부닥치는 상황에 따라 즉각에 거의 자동적으로 처신 내지 행동반응/reaction을 하도록 하는 식의 사회화, 말하자면 조건화/conditioning를 하는 방식은 適實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 IV

그런데도 전통적으로는 물론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부모든 학교든 또는 교회든 간에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教化 내지 信條 불어넣기/indoctrination—邊倒의 방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는 달리 주입/inculcation, 설복/imposition, 감화 또는 醇化라든가 德化/moralizing, 타이르기, 길들이기, 그리고 가장 극단적 형태로서 세뇌/brainwashing 등등 으로 불리우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매우 직접적이고 강압적으로든 또는 상당히 완곡하여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간접적으로든 간에 이러저러한 규범들이나 價値群/set of values을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부터 다른 개인 내지 집단으로 전수하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교화의 방법은 전에 미래의 모습이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여러 교육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합치되어 있었던 때에는 당위와 가치를 가르치어 전수하는 데 비교적 효과가 있었을 성싶다. 그러나 이제 이 방법은 당면하고 있는 윤리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고, 하물며 앞날에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거의 無用之物이 되거나 오히려 원활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有害之物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다.

오늘날이나 미래의 상황에서는 전래의 硬化된 행위규칙들/transmitted, rigid conduct codes을 그대로 좇아 지키는 단순한 반응 행동의 능력과<sup>15)</sup> 성향만으로써

14) Kirschenbaum and Simon, *op. cit.*, pp. 258~59.

15) Harold G. Shane and June Grant Shane, "Educating the Youngest for Tomorrow," in Alvin Toffler, ed., *Learning for tomorrow: The Role of the Future in Education* (New York: Vintage Books,

도덕생활을 꾸려 나아갈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많은 융통성과 보다 빠른 적응력을 지니고<sup>16)</sup> 도덕적 판단기준들/moral criteria을 반성적으로 적용/reflective application하여 감으로써 불가측하게 일어나는 갖가지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sup>17)</sup>

그리고 이에 맞추어, 도덕교육도 그 유효화를 위하여서는, 지난날에서 오늘까지 사회적으로 적용되어 온 각가지 細則 細目的인 규범이나 덕목들을 고스란히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입 내지 교화하여 전수하고자 하는 기도로부터 탈피해 가야 할 것이다. 즉 지금은 바야흐로 P. Freire가 말하는 이른바 ‘은행저축식’ 개념/the ‘banking’ concept의 교육에서<sup>18)</sup> 벗어나서, 오히려 理智的이고 비판적인 사고라든가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탐구/open-ended exploration<sup>19)</sup> 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도덕교육의 과제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 V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처방이 곧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적 規準의 無用論을 주장하거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도덕교육에서 일체의 기성 도덕규준들을 도외시하여 버리고 게다가 어떤 새로운 규준들을 모색하여 끌어 들이려는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각자의 그때 그때의 恣意的인 가치판단에 따른 奔放自在의 결행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처사가 되게 마련이다. 이는 바로 도덕교육의 拋棄로서, 거기에는 개개인의 도덕성과 더불어 사회의 질서와 통합/integration을 표류케 하여 마침내 流失시켜 버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의 변천과 차이에 불구하고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보다 논리적으로 포괄되고 보편적이며 일관성이 높은/appealing to logical comprehensiveness, universality, and consistency<sup>20)</sup> 원리적인 수준의 도덕규준들

1974), p. 193.

16) Ibid.

17) Peters, *op. cit.*, p. 46.

18) Freire, *op. cit.*, p. 4.

19) Richard E. Servey, *Elementary Social Studies: A Skill Emphasi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1), p. 69.

20) Porter and Taylor, *op. cit.*, p. 4.

을 우선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도덕교육은 이러한 속성을 보다 크게 지닌 최소한의 원리적 행위규준 내지 도덕률들/moral rules을 제시하고, 논의/discourse 등을 통하여 그것들을 熟慮 검토케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생활의 갖가지 실제적인 국면에 처하여서는 그런 원리적인 것들을 지침 내지 준거로 삼되, 그 적용에 있어서는 膠柱鼓瑟의 고착된 執心과 타성에서 벗어나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에 신선하고 예리한 지적 知覺/inteligent perception과 합리적 사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직면하는 개개의 독특한 상황과 그 순간순간에서의 가장 적합하고 정당한/proper and right 가치라든지 행위를 탐색 선택하고 그것을 실현 이행해 나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하여 갈 필요가 있다.<sup>21)</sup>

## VI

무릇 도덕 내지 윤리에는 으레 ‘當爲’/ought, ‘善’/good, ‘올바름’/right과 같은 낱말들이 동반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이란 그 지시 내지 처방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할 만한 이유들/reasons이 있다고 하는 시사를 함유하고 있다.<sup>22)</sup> 이를테면 ‘공부를 하여야 한다’ 또는 ‘그래야 마땅하다’. ‘그리는 게 좋다’.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음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컨대 ‘공부하라’ 또는 ‘그렇게 하시오’와 같이 그럴 이유가 있다는 암시가 그 말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명령/commands과는 그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이 사뭇 다른 것이다. 이러한 명령이란 비록 말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시리 또는 하지 않게시리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응 내지 반작용들/reactions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가촉물이 막대기나 자극물들/goats or stimuli과 다를 바 없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sup>23)</sup> 인간이 아닌 동물을 사육하고 길들이는 경우에도 매한가지로 쓰고 있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명령에의 맹종과 그 반복을 통한 습관형성의 기도는 인간특유의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본디 모습의 도덕교육이라고도 말하기 곤란하

21) R. M. Hare, *The language of Moral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74 ~78.

22) Peters. *op. cit.*, pp. 47~48.

23) Ibid.

다. 오히려 도덕적 행위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한 행위자 자신의首肯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것을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도덕교육도 마땅히 그와 맥락을 같이하여 弘報/communique가 아닌 通話/communication에 의한 이유 내지 이치의 제시와 이에 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지도/guide하는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Ⅵ

그런데 이러한 도덕교육에서 다루게 되는 이유들은 가능한 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relevant 것들일수록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보다 앞서 그 이유들의 전제가 되고 있는 원리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럴듯한 것들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남의 뺨을 때려서는 안되는 까닭으로서 '뺨이 빨갛게 부어 오르기 때문에' 보다는 '아프게 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이유가 되는 것은 그것들이 전제하고 있는 원리들인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것은 될수록 줄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고통은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쪽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위하도록 이끌어 가는 과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타당도나 共感度가 높은 원리들을 가르치는 일이 요청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원리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오늘날과 앞으로의 사회변동의 급격함과 복잡함 및 그 불가측성 등을 감안하면, 될 수 있는 한 환경상황의 변화나 相違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 다소간 非相對性/non-relativity를 지니는 고도의 원리들/the higher-order principles 일수록<sup>25)</sup>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무릇 도덕적 행위규준들은 그 일반성/generality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준으로 명령/Gebot 내지 요구/Anforderung의 제시가 가능하다.<sup>26)</sup> 이를테면, '네 이웃을 사

24) Ibid., pp. 48~49.

25) Ibid., p. 51.

26) Richard L. Purtil, *Thinking about Ethic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76), p. 57.



랑하라'처럼 매우 일반적 내지 개괄적인 명령형식으로 언명될 수도 있고,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을 써서 '남을 해치지 말라'라든가 또는 그보다도 가일층 명세화된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덕적 명령의 표현이 보다 특정적/specific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자세하고 또렷한 행위의 준거 내지 지침으로 될 수 있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태에 직결 적용하여 거의 기계적으로 반응 행동하는 데에 편의한 강점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만큼 보편성이 줄어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황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 활용이 어려워지거나 부적절하게 되는 취약점 역시 갖게 마련이다. 즉, 이렇게 규준이 특정화되면 될수록 합리적 판단에 따른 조처를 취하기 위하여서는 그 규준으로부터의 逸脫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를 부득이 용인하게 되는, 이른바 예외규정들/exceptions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심지어는 그 규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도리어 賞讚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사정마저도 속출하게 된다. 또한 어떤 행위규준을 지침으로 함으로 인하여 다른 규범의 준행이나 덕목가치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불능케 되는 이른바 규범 내지 가치들 간의 갈등문제가 한층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게 마련이다.<sup>27)</sup>

## VII

물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회 내지 인간관계에 한결같이 적용되어 왔거나 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 평가 내지 행위에 있어서의 절대적 기준을 찾아 내고 확립시키는 일을 만족하리 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낸 論究는 여태까지 없는 성싶고<sup>28)</sup>, 또한 앞으로도 그게 용이한 과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도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도덕규범은 일정한 인간관계 내지 사회관계를 터전으로 하여 형성되고 그 속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의 모습이 상이하거나 하나의 사회라 할지라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생활양식/way of life인 문화가 달라지게 되면,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27) Ibid., pp. 55~58.

28) 金泰吉, 「倫理學」(서울: 傳英社, 1978), p. 409.

상적 인간관계의 규정인 도덕도 그 내용이 변모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보편타당하고 영구불변한 도덕적 행위규준 내지 도덕률을 想定하기란 곤란한 일이다.

모든 가치는 특정한 문화의 소산이고 따라서 좋은 것이니 옳은 것이니 하는 것은 결국 각 집단의 생활양식에 달려 있는 상대적인 것이며, 도덕도 역시 고정적인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이라는 이른바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W. G. Sumner는 윤리적 기준이란 주로 각 사회의 原規/mores와 같은 因習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인습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으로 또는 그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sup>29)</sup> 그의 이론에 따르면, 선악 正邪 시비와 같은 것은 각 사회가 규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행동주의학과/behaviorist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S. Freud의 초자아/super ego란 개념도 이런 관점과 그리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다.<sup>30)</sup>

그러나 도덕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 견해는 자민족우월주의/ethnocentrism로부터의 타파나 사회현상으로서의 도덕 내지 그 변천상에 대한 과학적 내지 경험적인 설명에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도덕생활이나 도덕교육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설명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심사숙고하는 생활 태도에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들을 恣意的인 것으로 여기게 하여 자칫하면 그들을 윤리적 회의에 빠지게 할 우려마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당위의 타당성에 대한 신념의 損壞는 갖가지 도덕규범을 열심히 준수하려는 개개인의 의지 내지 성향을 약화시키어 사회적으로 도덕적 무정부상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IX

어떤 사회가 도덕적 혼란에 빠져 들지 않고 건실하게 존속되고 그 속에서의 사회생활이 원활하게 영위되기 위하여서는, 때와 상황에 따라 무상하게 변덕부리지

29) Paul B. Horton and Chester L. Hunt, *Sociology*, 2nd. ed. (New York: McGraw-Hill, Inc., 1968), pp. 50~51.

30) Stanly M. Hor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尹燦遠, 郭信煥 역 (서울: 經文社, 1982), pp. 134~35.

않는 그런 確固不拔한 윤리적 가치판단 내지 행위의 지침들이 다소간에 그 사회안에 뿌리내리어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 상태가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평가기준 내지 행위원리를 발견 또는 확립하고자 하는 숭한 모색과 論究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부 극단적인 목적론들/teleological theories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윤리학적 견해들이 도덕생활에서의 이러한 원리 내지 지침의 필요성을 다소간에 강조하거나 시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31)</sup>

적잖은 사회학자 및 인류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계의 학자들이 사회와 시대에 따른 도덕규범 내지 윤리적 판단기준들의 다양하고 相違한 발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면적 상대성 속에 잠재해 있는 모든 인간사회에 공통되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것들의 규명에 관심을 가져 왔다. 그리고 아직도 사회집단에 따라 다소간 상이한 도덕률들의 저변에 있는 공통분모적인 의미와 목표 등을 탐구하는 노력을 포기치 않고 있다.<sup>32)</sup> 비록 외관상으로는 사회마다 다른 문화유형들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에게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본성, 필요 내지 욕구, 그리고 숙명과 같은 것이 있고, 또한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관계들 맺고 있는 까닭에 어떤 최소한도의 기본적 요건과 과제 및 문제해결의 방도 등이 공통적으로 따르게 마련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바람직하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행위 내지 그 관계를 규율하는 양식에 있어서도, 물론 그 강조하는 면에서는 각기 얼마만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대로 보편적인 틀의 존재를 기대해 보는 것이 그리 무리한 추론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사회관계 내지 집단을 이루어 이를 지탱하고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과 더불어 또는 그에 앞서 서로서로 개진 전달하는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고 얼마간은 믿을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소통이란, 구성원들의 진실

31) 金泰吉, 錢揭書, p. 409.

32) 金璟東, 「現代의 社會學: 社會學的 關心」(서울: 博英社, 1980), p. 206.

과 이해의 결여 가운데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眞實無爲나 상호이해와 같은 가치들과 이러한 것들을 구현시키는데 필요한 행위규준 내지 도덕률은 사회생활을 가능 또는 원활케 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이행시키기 위한 기도와 조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 X

따라서 설령 그것이 완전무결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次善이랄 수 있는 도덕적 판단 내지 행위의 원리적 준거들이라도 찾아 내어 그것들이나마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택할 수 있고 또 택하여야만 하는 최선의 처사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대체 어떤 원리 내지 도덕률들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도덕교육에서 제시 취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를테면 황금률/the Golden Rule과 같은 것은 그 取擲을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 또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는 유태·그리스도교계의 사회에서 오랫동안 널리 보급 증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儒學에서도 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인 '絮' 즉 推己及人의 道를 일생에 걸쳐서 지켜 나아가야 할 도리 내지 행위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對人的 사고 내지 생활태도는 오늘날의 상황윤리설이나 우리들의 일상적 도덕생활 속에서도 빈번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황금률이란 일반적으로 <신약성서>의 마태오 복음서 7장 12절의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라는 명령형의 교훈/precept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종종 'Do to others as you would be done by'로 단축하여 쓰기도 한다. 이는 예수의 이른바 산상설교 가운데의 한 구절로서, 루가의 복음서(6:31)에도 같은 내용의 수훈이 실려 있다. 황금률이란 이 교훈이 다른 기준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행위원리 내지 여타 기준들의 요약/compendium 또는 精華/distillation<sup>34)</sup>로 간주되

33) 上揭書, pp. 206~207.

34) Joseph Fletcher,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pp. 70~71.

어졌었기 때문에, 마치 황금이 그 밖의 금속들과 견주어서 탁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비유하여 명명된 것으로서<sup>35)</sup>, 이 가르침은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으로서 그리스도교도들의 이웃에 대한 본분인 이른바 사랑의 계명/the love commandment<sup>36)</sup> 서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근사한 의미나 요지를 지닌다라든가,<sup>37)</sup> 또는 황금률이란 결국 사랑의 원리의 실제적/practical 표현 내지 대중보급을 위한 그 변형/popular version이라고<sup>38)</sup>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황금률적인 用心處事를 인간의 준수하여야 할 바의 보편적 행위지침으로 격시하고 있는 가르침은 <論語>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衛靈公편(23)을 보면, 사람들이 평생토록 지켜 나아갈 만한 그런 한 마디 말이 있겠느냐는 제자인 子貢의 물음에, 공자는 그것은 ‘怒’라고 밝히고 부언하여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怒란 ‘如’와 ‘心’이 합쳐서 이뤄진 것으로써, 이 글자속에 함축된 뜻은 사람들의 마음이란 대개 비슷비슷하여서 타인의 所欲과 所惡이 내 경우와 별다른 바 없을 것인즉, 이와 같은 ‘同’情 내지 推己度人の 이치에 따라, 자신에 비추어 남의 심정을 헤아려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가 상대방에게 취할 타당한 행동거지를 정하는 심적 태도 내지 그에 따르는 거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9)</sup>

그리고 仁論 혹은 仁之書라고 불리우는<sup>40)</sup> 論語에 나타난 일부 仁의 의미를 보면, 顏淵편(92)에서 孔門 10哲 중의 한 사람인 仲弓이 ‘仁’을 물었을 때, 孔子는 ‘己所不欲 勿施於人’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怒’ 즉 推己及人の 道와 儒學倫理에 있어서의 이상, 즉 그 밖의 다른 모든 덕을 통합 총괄하는 최고의 행위원리 내지 至上的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sup>41)</sup> 仁과는, 위의 ‘己所不欲 勿施於人’이란 뜻

35) *Encyclopedia Britannica*, 1970 ed., S. V. "Golden Rule".

36) Fletcher, *op. cit.*, p. 70.

37) Purtil, *op. cit.*, p. 57.

38) Erich Fromm,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6), p. 130.

39) 李相殷, 「大學과 中庸의 現代的 意義」, 『大學·中庸』(서울: 현암사, 1967), pp. 349-50.

40) 鄭璣, 「孔子的 教育思想」(서울: 集文堂, 1980), p. 84.

41) 金泰泳, 「道德教育 理念으로서의 儒學上 <孝>에 관한 研究」, 『社會와 教育』3輯(韓國社會科教育學會, 1978. 2), p. 5.

같은 어구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의 거의 같은 內包를 지니는 개념들임을 推斷할 수 있다. 그리하여 怒를 곧 仁 내지 그 본질이라고 해석하거나<sup>42)</sup> 또는 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樞要的 方도 내지 행위원리로 간주<sup>43)</sup>하는 게 그리 무리가 아님을 시사해 준다.

## XI

그 밖에도 유태-그리스도교계의 다른 문헌들을 위시하여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교리들 가운데서도 다소간에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행위지침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sup>44)</sup>,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의 저술에서도 황금률적 표현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I. Kant가 내세운 그의 무상명법/Kategorischer Imperativ의 도덕 법칙들 가운데서 최고 또는 유일의 기본원리인<sup>45)</sup> “너의 의지의 準則/maxime이 언제나 동시에 하나의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게시리 행위하라”의 경우도 주관적 의지의 규정근거인 준칙 내지 格率이 도덕적으로 보편화/morally universalizable되기 위하여서는 可逆性의 기준/the reversibility criterion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황금률과 맥락을 같이하는<sup>46)</sup>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말하자면 위의 이른바 ‘순수실천이성의 근본법칙’/Grundgesetz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 이란 어떤 면에서 봐서 황금률의 추상화된 표현<sup>47)</sup> 또는 고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화된<sup>48)</sup>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이른바 상황윤리/situation ethics의 주창자들 가운데는 황금률 내지 사랑이 단지 出類의 주요원리 중의 하나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을 실현하는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유일의 원리/the only

42) 「大學·中庸」, 李東歎 譯解 (서울: 玄岩社, 1967), pp. 185-87

43) 梁大淵, 「儒學概論」 (서울: 新雅社, 1964), p. 250.; 鄭琰, 前掲書, pp. 133-35

44) Britannica, s. v. “Golden Rule.”; 「聖書大百科辭典」 (서울: 聖書教材刊行社, 1979), s. v. “황금률 (IDB)”

45) 金泰吉, 前掲書, pp. 136-39.

46) Jacques P. Thiroux, Ehtics: *Theory and Practice* 2nd. ed. (Enico, California: Glencoe Publishing Co., Inc., 1980), p. 63.

47) 鄭琰, 前掲書, p. 84.

48) Hartmann, op. cit., p. 108.

### XIII

요컨대 앞으로의 시대적인 상황에 부응하는 보다 적절한 도덕교육이 되기 위하여서는, 폭 넓은 변통성의 발휘가 가능한 그런 도덕적 원리들, 이를테면 황금률과 같이 상황의 변화와 相俤에 거의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일반성/generality 내지 비상대성/non-relativeness을 지니는 최소한의 도덕적 원리들을 골라서 깊이 있게 가르치되, 그 구현을 위한 당시와 당장/then and there에 적절한 의미해석이라든가 方途考案과 같은 현장적인 사항들은 개개인에게 맡김으로써, 그들 자신이 보다 많은 자유재량/free-hand과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Was soll ich tun? 라는 윤리적 물음을 끊임없이 자문하고 또 그에 대한 합리적인 最善答을 스스로 모색하고 터득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영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사고능력과 생활태도를 길러 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단지 이러한 도덕교육을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써 오늘날과 미래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모든 도덕적인 문제거리가 말끔히 해소되거나 현격히 감량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결코 포기하여서는 안되는 목표를 향하는 머나먼 長程에 제일보로서 반드시 착수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